

“前 보좌진이 악의적 비방”... 김병기 ‘비밀 대화방’ 갔다

사생활 의혹 논란 잇따르자 “흑화 공세 더이상 못 참아”
“계엄하려면 의원 다 체포” 등 당과 나를 모욕하는 언행
6명 계엄 직후 해임하자 피해자 행세하며 노골적 공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고 가족들의 공항편의를 항공사 측과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SNS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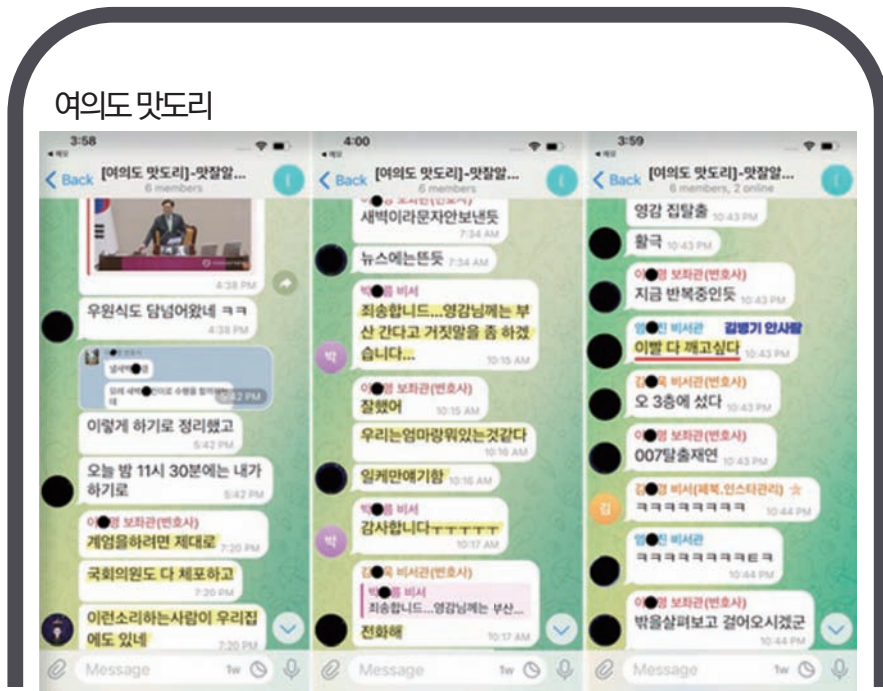
또한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

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비상계엄 다음 날), 6명의 보좌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2024년 12월 9일, 이들 6명에게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며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난 6월 원내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전직 보좌진들의 대화방.

페이스북 캡처

표 선거를 기점으로 상황은 악연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견제를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특히 변호사 출신 전직 보좌직원 두 명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

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웃으며 나눴던 말들은 추억이 아니라, 저와 가족을 겨누는 흉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반성은커녕 피해자 행세로 자신을 포장하며 점점 더 흑화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의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밀 대화방 ‘여의도 맛도리’의 불법 계엄 당시 이틀간의 대화 중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123 비상계엄 직후한 전직 보좌관은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네”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화에서 또 다른 보좌관은 “영감님(김 원내대표)께는 부산 간다고 거짓말을 좀 하겠다”는 내용과 “잘했어”라며 이에 호응하는 메시지도 보였다.

또한 한 여성 구의원의 촬영 사진, 김 원내대표 가족에 대한 욕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박지연 의원은 2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

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것은 항상 정치권이라 문제가 있다”며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3일 “김병기의 초초화 숙박권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내용의 논평 이외에 별다른 공세에 나서지 않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설득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위에 여야 의원들이 이런 해태들을 상임위 특히 대한항공이나 항공 운영할 때 받는 게 관행처럼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도 세계 말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도 받았는데 넌 안 받았어? 이러면 뭐라 그러겠냐”라며 “그렇지만 정치인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들 보기에 참 면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민주 “국힘, 통일교서 대선은 물론 전대까지 지원받아”

〈1면에서 계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 “지금 방안을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제3자 추천권)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법원행정처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에 근원”이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의 본질을 흐리고 쟁점을 인위적으로 산개시키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의 조건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합리적 제안에도 ‘셀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돌연 특검 대상에 신천지를 끼워 넣자며 쟁점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오늘(24일)은 나경원 의원의 전정공 방문 여부까지 거론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인사의 이름을 특검 논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서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론에 밀려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특검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방안을 주장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 수사대상을 ‘신천지’ 의혹까지 확대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철저한

물타기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신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하자는 것은 ‘통일교 특검’의 본질회기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통일교 특검에서 밝혀야 될 것이 여야 의원들, 또 여야의 여러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다. 그렇다면 그 관련된 여야를 빼고 나면 제3자 추천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야당도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선 민변이나 이런 단체가 아닌 제3자여야 되는데 그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추천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추천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특히 통일교 특검이 추진된 배경인 민중기 특검의 여당 배주기, 이런 부분을 또 특검에서 제외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놓고 실제로 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날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특검 추천권과 관련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권 부여’ 등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4일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오히려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받았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갑자기 무슨 뜻이지? 이렇게 어만 병병한 표정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는 개별 전·현직 의원들이 자기들은 금품 부정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작 국민의힘이야말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전당대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통일교, 신천지

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특히 통일교 특검이 추진된 배경인 민중기 특검의 여당 배주기, 이런 부분을 또 특검에서 제외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놓고 실제로 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SNS를 통해 “유사 종교집단이 정계에 잠입해서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한 것은 2021년 7월 윤석열이 국민 의회에 들어올 때 신천지 10만 1000원짜리 책당가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유사 종교집단의 몰표로 경선판을 뒤집어 본 윤석열 경선 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성당 예배를 보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사림의교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광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이 자신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끝난 전재수 의원 하나 잡으려고 시작한 국힘의 단견(短見)이 결국 역공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뿐”이라며 “기왕에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으니 이번 기회에 반헌법적인 유사 종교집단의 정치 관여를 뿌리째 뽑아 한국 정치판을 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바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라.

한영임 지음 | 272쪽 | 15,000원
도서출판행복에너지